데스크 시각

도시를 바꾸는 1%의 마법

박 진 현
문화·예향 담당국장, 선임기자

지난 2014년 이른 아침, 영국 런던의 패딩역에서 기차를 타고 게이츠헤드(Gateshead)로 향했다. 관광지도 아닌 옛 탄광도시를 찾은 건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유명한 '북쪽의 천사'(Angel of the North)를 '직관'하기 위해서였다. 설레는 마음으로 3시간 30분을 달려 게이츠헤드에 도착하자 에이톤 로지 언덕에 자리한 '북쪽의 천사'가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왔다. 높이 20m, 가로 52m, 무게 208톤의 압도적인 스케일과 양쪽 날개를 편 조각상을 본 순간 나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다. 1997년 세계적인 거장 안토니 곰리가 탄광촌에서 문화도시로의 비상을 꿈꾸는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은 명불허전이었다. 탄생과 동시에 매년 유럽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다는 게 새삼 실감이 났다.

밤에 피는 장미 '아마벨'

'북쪽의 천사'와 달리 '축복받지 못한 채' 태어난 공공 조형물도 많다.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 세워진 미국 추상화가 프랭크 스텔라의 '꽃이 피는 구조물-아마벨(Amabel)'이 그중에 하나다. 고철 덩어리로 만든 9m 높이에 30톤 무게의 이 초대형 조형물은 생명 존중과 물질문명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비행기 잔해로 꽃을 표현한 작품이다. 하지만 1997년 베일을 벗은 철제 조형물은 하루아침에 동네북이 됐다. 예술성과 거리가 먼 고철덩어리라며 여기저기서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포스코는 작가와 협의해 철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일부 미술 전문가들이 '상투적이지 않고 미학적으로 깊이가 있다'며 재고를 촉구하면서 존치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여기에는 붉은빛의 야간 조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포스코의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2012년부터 야간 조명을 활용해 낮에는 쇠붙이지만 밤에는 환상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테헤란로의 명물로 변신시킨 것이다.

요즘 광주의 도심을 걷다 보면 크고 작은 공공 조형물들을 심심찮게 만나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소성과 예술성을 살려 도시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거리의 명작'은 손꼽을 정도다. 지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수상한 뷰폴리·GD폴리가 문화수도의 아이콘이라면, 광주 수완호수공원의 '희망 우체통', 광주 중앙초교의 폴리 '광주 사람들', 예술의 거리의 조각상 등은 시민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광주 광산구청이 예산 1억 원을 들여 설치한 7m 높이의 '희망 우체통'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는 온데간데없고 문이 굳게 잠긴 내부에는 담배꽁초와 전단지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다. 또한 2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장성 남면에 설치한 광주 톨게이트의 미디어아트 조형물 '무등의 빛'(가로 74m, 폭 8m)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광주시는 서울에서 광주로 진입하는 관문에 광주 출신의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조형물을 설치해 외지 방문객들로 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많은 광주시민들은 작품의 '존재'를 접하지 못한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광주톨게이트 한 곳에, 그것도 서울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방면에만 설치한 탓이다. 이 때문에 주로 동광주 톨게이트를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수십억 원을 들인 미디어 아트 조형물을 볼 기회가 없다. 또한 광주 도심의 고층 빌딩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비슷비슷한 형상의 조각상들이 우후죽순처럼 설치돼 주민들에게 '예술적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예술 작품이 거리로 나오게 된 건 1972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삭막한 거리에 활력을 불어 넣고 척박한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 1만㎡ 이상 신·증축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현재는 0.7%)를 미술품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 결과, 135점에 불과했던 공공 조형물은 전국에 1만 9326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2022년 3월 기준 광주 전역에 설치된 공공 조형물도 197개에 달한다. 하지만 기획력과 사후 관리 미흡으로 일부 조형물이 방치되면서 되레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공공 조형물, 선택과 집중을

문제는 이들의 수명이 '영구적'이라는 것이다.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조형물의 설치만 규정되어 있을 뿐 철거는 명시돼 있지 않아 방치된 상태로 파손될 때까지 존치된다. 주변의 건물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더라도 예술작품이라는 이유로 손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다. 근래 미술계 일각에서 '미술품 생애 주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건 그 때문이다. 5년 이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작품을 존속시키거나 폐기하는 등의 사후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아침 출근길, 우연히 눈에 들어오는 길 위의 조형물은 발걸음을 가볍게 만든다. 굳이 전시장을 찾지 않더라도 아파트 단지나 도심에서 예술의 향기가 짙은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다. 이처럼 거리의 미술관은 도시를 화사하게 물들이기도 하지만 칙칙하게 만드는 두 얼굴을 지녔다. 그런 점에서 지금 문화 광주에게 필요한 건 선택과 집중이다. '잘 만든' 공공 조형물은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랜드마크다.

은펜칼럼

방정환과 소년입지회(少年立志會)

박 행 순
전남대 명예교수

제100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운동의 창시자인 소파(小波) 방정환(1899~1931) 선생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그는 만 여섯 살까지 할아버지에게 천자문을 배웠으나 어느 날 머리를 자르고 집안 어른들로부터 크게 야단을 맞았지만 보성소학교 유치반을 시작으로 신학문의 길에 들어섰다.

아홉 살 때, 또래 친구들을 모아 소년입지회(少年立志會)를 조직하고 토론·연설·동화 구연 등을 하였는데 2년 만에 회원이 160명이 넘었다. 18세가 되던 1917년 천도교 3대 교주인 의암 손병희의 셋째 딸 손용화와 결혼한 후 천도교를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천도교 청년 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연과 단체 결성으로 바쁜 삶을 살았다. 특히 그의 동화 구연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같은 해인 1917년에는 '청춘'을 통하여 등단하고 번역·창작 등 작품 활동도 시작하였다. 1920년 '개벽' 3호에 번역 동시 '어린이 노래'를 발표하면서 그가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 아이도 늙은이, 젊은이와 같은 어엿한 인격체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1919년 3·1 운동 이후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자 전국 각지에서 소년회를 결성하였다. 특히 천도교 소년회는 1922년 5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와 관련하여 동아일보에는 어린 사람에게 헛말로 속이지 말 것, 경어를 쓸 것, 충분한 수면과 운동을 하게 할 것, 자주 이야기해 줄 것, 때 맞춰 이발과 목욕을 시킬 것, 동물원에 자주 보내줄 것, 시집·장가 보내려고 서두르지 말고 사람답게 대하라는 소년보호 운동 7개 조항이 실렸다. 이는 1925년 '아동복지를 위한 세계 회의'(World Conference for the Well-being of Children)가 열린 제네바에서 제정한 '국제 어린이날'(6월 1일) 보다 3년이나 앞선 것이다.

1923년 3월 일본에 유학 중이던 방정환을 중심으로 도쿄에서 새로운 어린이 운동 단체인 색동회를 조직하고 '어린이'라는 이름으로 잡지를 창간하였다. 5월 1일에는 40여 개 소년회가 연합한 조선소년운동협회가 전국적인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색동회는 이날을 '제1회 어린이날'로 선포하였다. 어린이에게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할 것, 14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노동을 시키지 말 것, 어린이들이 배우고 놀기에 필요한 각양의 시설을 제공할 것을 기치로 삼았다.

아동 노동은 100년 전 우리나라뿐 아니라 현재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외의 대표적 사례로 파키스탄의 이크발 마시흐(Iqbal Masih, 1983~1995)는 네 살 때부터 카펫 공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매일 10시간 이상 일하는 수많은 아동 노동자중의 하나였다. 그는 아홉 살 때 공장을 탈출하여 '미성년자 노동해방전선'과 함께 아동 노예 노동 실상을 폭로하며 세계적인 아동 인권가로 활동하였으나 열두 살 되던 해에 고향에서 괴한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1924년의 제2회 어린이날은 첫 해보다 훨씬 더 성대하게 치러졌다. 어린이 대회, 어린이 보호자 대회, 동화회, 동요회, 씨름, 그네뛰기 등 다양한 행사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대축제였다. 광복 후에는 5월 1일의 국제 노동절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5일로 바꾸었다. 1961년 제정·공포된 '아동복지법' 제6조에는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75년 이후 어린이날은 법정 공휴일이다.

암울한 일제 강점기에 작은 물결, 소파(小波)로 호를 삼은 방정환은 33세의 짧은 생을 살았다. 하지만 자유 대한민국에서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은 지금, 그는 가장 큰 물결로 기억된다. 한 세기 이전에 소년 방정환이 활동하던 소년입지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 좋겠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익숙한 우리 어린이들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새롭고 큰 뜻을 세우고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 어린이들과 함께 건강한 지구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를 바란다.

기 고

개혁 군주 정조와 다산의 리더십

박 안 수
말뫼아카데미 원장·경제학박사

오래 전에 사 두었던 '목민심서'를 다시 펼쳐 보았다. 6·1 지방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목민관들에게 지침이 되는 헌법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최근 광역·기초 단체장 후보들이 잇따라 확정되면서 선거 대진표가 짜이고 있다. 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순수한 열정인지 정치적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정략인지 여부다.

최근 지상파TV에서 조선 22대 정조 임금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종영되었다. 한 인간으로서 정조의 사랑과 통치 리더십을 그린 드라마다. 드라마는 작금의 공정과 정의, 그리고 선공후사를 은유적으로 시사했다. 조선의 태평성대이자 요순시대를 꼽는다면 아마도 세종, 영조, 정조 시대일 것이다. 흔히 이들을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모두가 알고 있듯 정조는 개혁 군주이자, 검소하고, 문무를 겸비한 군주다. 백성을 가장 아끼고 효심이 지극한 임금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는 당파와 정쟁이 가장 극렬했던 시기에 권좌에 올라 탕평책을 한층 강화하였다. 심지어 왕의 침실을 '탕탕평평실'(蕩蕩平平室)이라고 명명했다.

탕평 인사를 오늘날 연정이라고 보면 앞으로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벤치마킹할 대목이 적지 않다. 정조는 최측근 인사가 비리에 연루되자 당시 도승지(현 비서실장)까지도 사적인 정은 뒤로 하고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처벌했다. 수신제가(修身齊家)의 표상인 셈이다.

정조는 선정을 펼치기 위해 규장각을 설치해 책 읽고, 공부했던 임금이다. 실학이 가장 융성했던 시절로 박제가와 이덕무 등 서얼도 관직에 등용시켰다. 역사가들은 이를 조선의 르네상스가 완성됐던 시기로 평가한다. 어디 그뿐인가 명재상인 채제공을 비롯하여, 어사 박문수, 추사 김정희 그리고 무사 백동수 등 각 분야에서 걸출한 많은 인사들이 배출되었다. 제주의 여성 사업가인 김만덕은 정조 때 전 재산을 구휼했던 의인이며, 거상 임상옥도 이때 인물이다.

정조는 다산 정약용으로 하여금 혁신도시인 화성(수원)을 건설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시작하였고, 당시 문제가 많았던 평안도 곡산부사로 명하여 목민관으로서의 선정을 베풀도록 했다. 이는 다산이 후에 주옥 같은 마과회통과 목민심서를 집필하는 데 많은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본다.

다산은 목민심서를 비롯하여 흠흠심서, 그리고 경세유표 등 수많은 실용적인 책을 집필하였고 당시 가장 중요한 산업인 농업에 대한 시각을 편농(便農)·후농(厚農)·상농(上農)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해 과학적인 농사를 권장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심혈을 쏟았다. 시전 상인의 독과점인 금난전권(禁亂廛權)을 혁파하여 모든 백성이 자유롭게 장사인 상업을 할 수 있는 신해통공(辛亥通共)도 이룩하였다.

정조는 백성을 아끼는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당시 지역 차별을 없앴고 천주교인 서학까지도 받아들이는 그야말로 시대의 변화를 읽었던 개혁 군주다. 그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고 실천했다. 정조 시대가 아니였으면 다산의 위대한 업적들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정조의 갑작스러운 승하가 없었다면, 조선의 운명은 더 많은 발전을 가져 왔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정조와 다산의 백성을 아끼는 목민관 리더십을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모든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보길 기대한다.

社 說

국정과제 실천이 관건…누락 현안도 챙겨야

새 정부 국정과제에 광주의 인공지능(AI)·모빌리티(mobility: 이동 수단) 산업, 전남의 광양항·우주항공 클러스터 등이 포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국가적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어제 발표했다. 이 가운데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과 '미래 모빌리티 육성' '광주 AI특화 데이터센터'는 광주시가 미래 100년 먹거리로 육성해 온 전략산업이다. 인수위는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완전 자율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 전기차·수소차 클러스터를, AI와 관련해서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 구축 등을 약속했다.

전남의 경우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 물류체계 구축' 과제에 광양항의 완전 자동화 항만 구축이 반영됐다.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육성'과 '녹색 신산업 집중 육성'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밖에도 윤 당선인이 약속한 지역 공약들 상당수가 국정과제와 연계돼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시도가 추가 과제로 건의한 서울~광주·광주~부산 2시간대 연결 고속도로 건설과 광주 송정역 복합 역사 건립, 전남의 국립 의과대학 설립,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본사 이전 등 지역 현안들은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인수위는 오늘 광주를 찾아 '광주·전남 권역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새 정부에서 추진할 광주·전남 공약과 정책 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과제 선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와 실천이다. 새 정부와 시도는 국정과제에서 누락된 지역 현안들도 적극 챙겨 윤 당선인이 약속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족관에 갇힌 고래들 이젠 바다로 돌려보내자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수족관에 있던 흰고래(벨루가) 세 마리 가운데 두 마리가 지난 2020년 7월과 2021년 5월 차례로 폐사했다. 야생 벨루가의 평균 수명이 30년 이상인데 비해 폐사한 벨루가는 12살 정도였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 13년 동안 전국 여덟 곳의 수족관에서 46마리의 고래류가 폐사했다. 폐사의 가장 큰 원인은 고래류의 생태를 무시한 채 비좁은 수족관에 가둬 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래류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오염된 수질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 결국 평균 수명에 못 미쳐 폐사에 이르는 것이다. 고래류는 야생 상태에서 수심 수백m 아래까지 잠수하고, 하루 수십~수백㎞를 이동한다. 또한 가족 단위로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어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수족관에 있는 고래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여섯 곳의 수족관에 22마리의 고래류가 갇혀 있다. 종류별로는 멸종위기종인 희귀 흰고래 다섯 마리를 비롯해 큰돌고래 16마리,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이다. 앞서 서울대공원은 지난 2013~2017년 수족관에서 지내며 쇼를 하던 남방큰돌고래 일곱 마리를 제주 바다로 돌려보낸 선례가 있다.

더 이상 고래들을 인간의 흥밋거리로 삼아서는 안된다. 살아 있는 고래의 수출입과 수족관 전시 및 공연 금지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지금까지 열 개 국가가 이를 금지했다. 우리나라도 이젠 벨루가 등 고래류를 바다로 돌려보내고, 수족관에서 전시·공연하는 반생명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정부는 위험에 처한 고래류를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해양 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친권 박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가해자는 80% 가량이 부모다.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학대하는 가해자가 되는 현실에도 부모의 권한은 제한하기가 쉽지 않다. 민법에서 '친권은 곧 성역'이기 때문이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도 부모의 친권이 아동의 인권보다 우선되는 친권 우선주의가 있다. 현행 민법에는 학대·방임을 이유로 부모의 친권을 제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렇다 보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행정기관이 잠시 부모와 자녀를 분리 조치했더라도 친권이 유지되면 자녀를 부모에게 돌려 보낼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유다.

지난해 2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정인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웬만한 사건이 아니면 친권 박탈이 쉽지 않고 검사가 아닌 피해 관계자가 친권 박탈을 청구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

광주에선 올해 초 세살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양부모의 친권이 박탈됐다. 양부모는 2019년 4월 입양아 두 명 중 한 명을 폭행하고 나트륨이 과다 함유된 음식을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구청에선 남은 입양아 한 명을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하려했지만 친권이 살아 있어 1심 재판으로 양부모들이 구속될 때까지 2년간 분리하지 못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인면수심의 범죄에 한해 친권 박탈이 이뤄졌다. 올해 2월 대구에선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여덟 살 친딸을 성폭행한 30대 아버지가 검찰의 청구로 친권을 상실했다. 4월에는 갓 낳은 자신의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청주의 20대 엄마가 징역 12년과 함께 친권 상실형을 받았다.

미국은 심각한 신체적 상해나 만성적 학대 및 방임 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학대받은 아이가 스스로 부모와 연을 끊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어제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 중심의 법률을 자녀 중심으로 전환한 것인데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조치다.

/장필수 사회담당 편집국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